

# 캔버라 한인성당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 주일미사 성가번호 |

입 당	예물 준비	영성체	파 견
169 (사랑의 성사)	220 (생활한 제물)	164 (떡과 술의 형상에)	162 (성체 성혈 그 신비)

### 제 1독서 | 탈출기 24,3-8

#### 화답송 |

◎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좌)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주님께  
값으리오?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

○(우) 주님께 성실한 이들의 죽음이, 주님 눈에는  
참으로 소중하네. 저는 당신의 종, 당신 여종의  
아들. 당신이 제 사슬을 풀어 주셨나이다. ◎

○(좌) 주님께 감사 제물 바치며, 주님 이름  
부르나이다.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나의 서원 채우리라. ◎

### 제 2독서 | 히브리서 9,11-15

####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알렐루야

#### 복음 | 마르코 14,12-16.22-26

#### 영성체 후 묵상 |

사제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그 아멘은 확인에 찬 마음에서 우려나오는 “아멘”이어야 합니다. 성체성사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십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시고, 살기 위한 힘을 나에게 주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사랑 전체가 성체성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성체성사를 통해 그분 안에 머무르며, 그분도 우리 안에 머무릅니다.

## Today's Gospel, <Mark 14,12-16.22-26>

On the first day of Unleavened Bread, when the Passover lamb was sacrificed, his disciples said to Jesus, 'Where do you want us to go and make the preparations for you to eat the passover?' So he sent two of his disciples, saying to them, 'Go into the city and you will meet a man carrying a pitcher of water. Follow him, and say to the owner of the house which he enters, "The Master says: Where is my dining room in which I can eat the passover with my disciples?" He will show you a large upper room furnished with couches, all prepared. Make the preparations for us there.' The disciples set out and went to the city and found everything as he had

told them, and prepared the Passover.

And as they were eating he took some bread, and when he had said the blessing he broke it and gave it to them. 'Take it,' he said 'this is my body.' Then he took a cup, and when he had returned thanks he gave it to them, and all drank from it, and he said to them, 'This is my blood, the blood of the covenant, which is to be poured out for many. I tell you solemnly, I shall not drink any more wine until the day I drink the new wine in the kingdom of God.'

After psalms had been sung they left for the Mount of Oliv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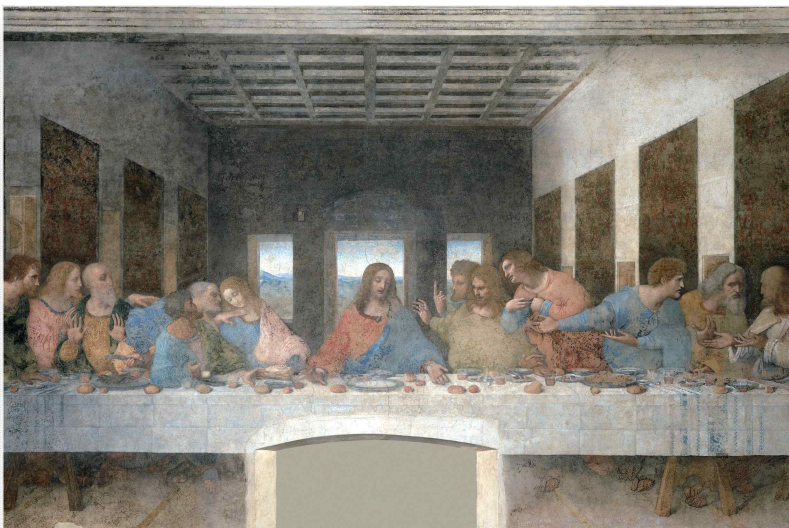
무교절 첫날 곧 파스카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가서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며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터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스승님께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을 내 방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자리를 깔아 준비된 큰 이층 방을 보여 줄 것이다. 거기에다 차려라.” 제자들이 떠나 도성 안으로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일러 주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파스카 음

식을 차렸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니 모두 그것을 마셨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 산으로 갔다.



최후 만찬을 주제로 그린 다른 성화들과는 달리 이 성화는 유대 이스카리옷이 예수님과 같은 방향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례가 끝날 때까지 그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성찬례는 누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처럼 나약한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이자 기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기쁨과 감사함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성체성혈 대축일 교황님 강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념 제사를 남겨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단지 말씀만을 남겨 주시지 않았 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들은 것을 잇기는 쉽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성경만을 남겨 주 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것을 잇기는 쉽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표징들 만을 남겨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본 것조차 잇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맛본 어떤 것을 잇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당 신이 정말로 현존하시고 살아계시고 참된, 당신 사랑의 그 모든 맛을 갖고 있는 성체를 우리에게 남겨 주 셧었습니다. 그분을 받아 모시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는 주님이시다. 그분께서 우리를 기억 하신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 라.”(고린토 1서 11,24). 행하여라! 성체 성사는 단순히 한 추억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입니다. 주님의 파스카가 우리를 위해 다시 한번 만들어집니다. 미사 안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앞에서 일어납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나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한 백성으로서 모여 서 성체를 기념하여라. 우리는 성체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체가 하느님의 기억이기 때문입니 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상처 입은 기억을 치유합니다...

성체를 통해서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부정적인 기억을 낮게 하십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의 마음에 스며드는 부정성. 주님께서서는 이 부정적인 기억을 치유하십니다, 이것이 잘못되어 온 것들을 그리고 우리가 쓸모 없 다는 슬픈 생각, 우리는 오로지 잘못만 하고 우리 자신이 바로 잘못이라는 슬픈 생각과 함께 우리를 버려 두는 것들을 표면으로 끌어 올립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 주시려고 오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와 가까워지고 싶어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받아 보실 때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는 소중하다고, 우리는 그분께서 당신 잔치에 초대하신 손님이라고, 당신께서 함께 만찬을 들고 싶은 친구 라고 알려 주십니다. 그리고 단지 그분께서 자비롭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정말로 우리와 사랑에 빠 져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그대로의 아름다움과 선함을 바라보시고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는 악과 죄가 우리를 정의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들은 병이고 전염병입니다. 그리고 그분 께서 성체로 그것들을 치유하시려고 오십니다. 성체는 우리의 부정적인 기억에 대한 항체를 갖고 있습니 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슬픔에 면역력이 생깁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실패들과 고민들과 집에서 직 장에서의 문제들과 우리의 실현되지 못한 꿈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의 무게가 우리를 으 스러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시면서 훨씬 더 깊이 현존하 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체의 힘입니다. 성체는 우리를 부정성이 아니라 하느님을 전하여 주는 사람, 기쁨을 가져다 주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미사에 가는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슬픔과 비통함일까 아니면 주님의 기쁨일까? 우리가 계속 불 평하고 비판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후회스럽게 느끼면서 성체를 받아 모시는가? 이것은 어떤 것도 더 좋아지게 만들지 못합니다, 반면 주님의 기쁨은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거룩한 미사의 우리 봉헌을 계속합시다. 우리의 기억을 낮게 하시는 기념 제 사. 절대로 잊지 마시다. 미사는 기억, 마음의 기억을 치유하는 기념 제사입니다. 미사는 교회와 우리의 삶 모두에서 제일 첫째여야 하는 보물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체 조배를 재발견합시다. 성체 조배가 우리 내면 안에서 미사의 작용을 지속시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많은 좋은 일을 해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것이 우리를 내면에서 치유하기 때문입니다.

## 공지 사항

### 1. '여정 - 시즌 1' 안내

- 가톨릭 교리 강의 및 '거룩한 독서' 나눔 모임
- 모임 시간: 매 주일 오후 1:00 ~ 2:20

### 2. 첫영성체 교리반 안내

- 일시: 7월 7일(주일)~ 28일(주일) (총 4회)
- 교리 시간: 매 주일 오후 1:00 ~ 2:20
- 대상: 첫영성체를 받지 않은 7살 이상 학생
- 첫영성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청서 PDF 파일은 성당 홈페이지 '주보'게시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 미사 참례자 수 |

5월 19일	유아·청소년: 22명	성인: 47명
5월 26일	유아·청소년: 22명	성인: 44명

### | 온라인 묵주기도 모임 |

화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 전례 독서 봉사자 |

이번주 (6월 2일)	이상명 다니엘, 이재희 루시아
다음주 (6월 9일)	이국원 필립보네리, 김미현 보나

### | 미사 후 뒷정리 및 예물봉헌 |

이번주 (6월 2일)	요한반
다음주 (6월 9일)	루카반

### | 우리들의 정성 | (5월 25일 ~ 5월 31일)

봉 헌 금	\$378.10			
교 무 금	\$530			
권묘순	남궁영근	손재호	안영규	양홍석
윤현태	이국원	장호훈	조성희	주정자
황병옥				

### | 기도 지향 |

- \* 이원순 글라라 자매님의 건강을 위해
- \* 예비신자 - 문서 자매님과 양주영 자매님을 위해
- \* 가르멜 수녀원, 성체의 안젤라 수녀님을 위해

###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 \* 이니셜이 아닌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